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 147명 시상식

서울대 합격 관인고 홍다솔 학생 사례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2월15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07년 한해를 빛낸 147명의 글로벌 인재 새싹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은 이날 시상식에서 나의 꿈, 나의 학문'을 주제로 사례담을 발표하고 있는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합격한 관인고 홍다솔 학생)

8개월 이상 영어일기를 쓴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최길용 교육장은 "두번째 실시하는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 시상식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고, 교사들에게는 보람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이러한 시상상을 계기로 학생들이 보다 더 큰 꿈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7명의 수상자에 비해 숫자가 크게 늘어난 147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포천 글로벌 인재 새싹은 점차 지역과 나라를 끌고 나

갈 인재로 성장하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관인면이 고향으로 관인초, 관인중, 관인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건축공

학과에 진학한 홍다솔 양을 감사로 초빙하여 '나의 꿈, 나의 학문'이라는 우수 사례담을 듣기도 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교육청은 2월15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07년 한해를 빛낸 147명의 글로벌 인재 새싹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사진은 이날 시상식에서 '나의 꿈, 나의 학문'을 주제로 사례담을 발표하고 있는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합격한 관인고 홍다솔 학생)

제95회 졸업생 301명 졸업식 개최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포천초등학교



2008년2월14일 목요일에 포천초등학교가 제95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2008년2월14일 목요일에 포천초등학교(교장 임중수)가 제95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그동안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수가 총 1만8천877명인 포천초등학교는 이날도 포천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를 쉬는 날인데도 축하해 주러 온 많은 후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1명의 어린이가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식과 종업식을 함께 같은 날에 하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포천초등학교는 14일에 졸업식을 하고 15일에 종업식을 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6년 동안 성실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한사말 한사람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며 축하해 주셨으며, 포천초등학교 어린이로서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선행을 해왔던 많은 어린이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하며 칭찬해주셨다.

이 학교가 자랑하는 관악부의 연주에 맞춰, 졸업생들은 침울한 모습으로 졸업식 노래 부르는 것을 끝으로 정든 학교를 떠났다.

4학년 때 관악부에 입단하여 3년 동안 관악부원으로 활동을 해왔던 문현아 어린이는 "6년동안 정들었던 학교와 관악부 그리고 정든 후배들과 선생님이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서 졸업하기 싫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지연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skfkgks3@hanmail.net

- 포천교육청 인사**
- 도덕윤리 ▶정수연 포천여자중학교(신규) ▶조민지 포천중학교(신규) ▶이승환 관인중학교(신규) □국어 ▶장중희 갈월중학교(신규) ▶임미미 관인중학교(신규) ▶강재영 포천중학교(신규) ▶양승숙 포천중학교(신규) ▶김유진 대경중학교(신규) ▶송진경 포천중학교(신규) ▶정현숙 포천중학교(신규) ▶심재성 송우중학교(일동) ▶이은영 대경중학교(포천) □역사 ▶접선경 일동중학교(신규) ▶허선미 대경중학교(신규) □지리 ▶이민순 일동중학교(부천) □수학 ▶박현수 경북중학교(신규) ▶김기희 영중중학교(신규) ▶권기주 영중중학교(신규) ▶최희로 포천여자중학교(신규) ▶박지우 포천여자중학교(신규) ▶최지영 포천여자중학교(신규) ▶문정민 송우중학교(금오) ▶곽미향 일동중학교(영덕) ▶이영숙 대경중학교(경북) □물리 ▶고민성 갈월중학교(신규) ▶박하영 포천여자중학교(신규) □생물 ▶이효정 포천여자중학교(신규) ▶장유리 포천중학교(신규) □음악 ▶열지원 갈월중학교(신규) ▶유수연 포천여자중학교(신규) ▶윤아리 일동중학교(신규) ▶이은미 일동중학교(신규) ▶서은희 포천중학교(신규) □미술 ▶강희경 삼성중학교(신규) ▶최영 내촌중학교(신규) ▶손리주 포천여자중학교(신규) ▶신은경 포천중학교(신규) □한문 ▶김기우 포천중학교(일동) ▶이은영 송우중학교(신규) ▶서주아 송우중학교(신규) ▶서민경 포천중학교(신규) ▶주혜경 포천여자중학교(신규) ▶박지은 일동중학교(신규) ▶우소영 영북중학교(신규) ▶권수란 삼성중학교(신규) ▶허수희
- 관인중학교(신규)** □기술 순명라 포천중학교(신규) ▶백승욱 이동중학교(신규) ▶김진태 송우중학교(송우) ▶손종우 대경중학교(포천) ▶장현주 포천여자중학교(포천) □가정 ▶박혜은 송우중학교(신규) ▶전혜진 포천여자중학교(신규) ▶한보라 영중중학교(신규) ▶안솔기 대경중학교(신규) ▶이미영 포천중학교(대경) □체육 ▶김철 갈월중학교(신규) ▶김대철 경북중학교(신규) ▶도재영 포천여자중학교(신규) ▶김준환 관인중학교(신규) ▶장병희 포천여자중학교(갈월) ▶강정욱 포천중학교(영중) ▶이근효 영중중학교(포천) ▶정일범 포천중학교(포천) ▶이명희 포천중학교(포천) ▶김수미 송우중학교(가람) □정보컴퓨터 ▶김유미 영북중학교(신규) □특수 ▶신혜리 삼성중학교(신규) ▶조순이 대경중학교(신규) ▶김아람 대경중학교(신규) ▶박지현 영북중학교(신규) □공통사회 ▶한혜리 영중중학교(신규) ▶김동일 이동중학교(신규) ▶최준호 일동중학교(포천) ▶진중환 관인중학교(영중) ▶송은하 포천중학교(포천) ▶이유권 송우중학교(포천) □공통과학 ▶김미연 일동중학교(신규) ▶조은경 삼성중학교(신규) ▶김효선 포천중학교(신규) ▶방혜정 송우중학교(신규) ▶최혜미 포천여자중학교(일동) □상담 ▶정지숙 영북중학교(신규) ▶김성희 포천교육청 학교(신규) ▶임미선 일동중학교(신규) 이상
- 3월1일자)은 전임교



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주초등학교 명예기자 추기운입니다. 이제 추위도 잠시 주춤 하고 남쪽 지방에는 벌써 꽃봉우리가 피었습니다. 이제 곧 포천에도 봄을 알리는 꽃 봉우리가 질 것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세요. 추기운 학생명예기자(금주초 5년)xnrids031@naver.com

함께 공부해요

위의지칙(威儀之則) ④

冠義에 日 凡人之所而爲人者는 禮義也니 禮義之始는 在於正容體하며 齊顏色하며 順辭令이니 容體正하며 顏色齊하며 辭令順而後에 禮義備 하나니 以正君臣하며 親父子하며 和長幼니 君臣正하며 父子親하며 長幼和而後에 禮義入 이니라.

관의에 말하기를 "무릇 사람이 다운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의의 시초는 얼굴과 몸을 바르게 하고 낯빛을 온화하게 하며, 말소리를 순(順) 하는데 있다. 얼굴과 몸이 바르고 낯빛이 온화하여 말소리가 순한 뒤에야 예의가 갖추어진다. 그렇게 하므로써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를 바르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애하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가 화순하게 된 뒤에야 예의가 확립된다" 하였다.



양주승 본지 지면위원

운동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수와셈
4. <수> 읽기 : (2)
- 3천만 : 트리 밀리언스 = 백만x30 <Thirty millions.>
- 4,700 만 : 휘리세븐 밀리언스 = 백만x47(한국인구) <Fourty seven millions.>
- 12 억 : 일따우센 투한드레드 밀리언스 = 1,200x백만(중국인구) <One thousand two hundred millions.>
- 30,000 ft(feet) = 3만 휘이(비행고도) 트리따우센 휘이 <Thirty thousand feet.>
- 시속 900 km = (여객기 항공) 나인한드레드 킬로미를스 퍼어우어 <Nine hundred kilometers per hour.>
- 시속 70 마일 = (미국 고속도로 주행) 세븐티마일스 퍼어우어 = (한국 시속 112km) <Seventy miles per hour.>

문의 : 윤종성 (017-723-4977)cooyoon@nate.com

자유기고

사랑은

"엄마, 이 화분 좀 보세요. 화초가 살아 있어요. 파란 색이 나왔네요."
죽은 줄 알고 버릴 뻔한 화초가 다시 살아 난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엄마께 말씀드렸다.
우리 반 교실에는 서른 여덟개의 화분이 창가에 쭉 놓여 있다. 친구들이 모두 하나씩 가져다 놓은 것이다. 내 화분은 조그맣고 예쁜 보라색 꽃이 피는 화초가 심어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화분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물도 주고 보살펴주세요."하셨다.
처음 며칠 동안은 열심히 물을 주며 보살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 그만 물주는 것을 잊고 말았다. 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내 화초는 그만 시들시들 말라서 죽어있었다. 다른 친구들의 화분은 모두 싱싱한 화초들을 담고 있는데 내 것만 죽어 있으니가 속상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께 "엄마, 내 화초가 죽었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께서는 화원에서 조그만 국화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사주시며 "이 화분 가져다 놓고 죽은 화분 가져와"하셨다.
내가 가져온 화분을 본 엄마께서는 "아이고, 이러니까 화초가 죽었지! 뿌리가 틀려있는 것을 보니 화분을 넘어뜨린 것 같구나. 뿌리가 살아 있으면 모르겠네" 하시더니 가위로 죽은 줄기들을 모두 자르고 거름흙을 가져다가 화분 속에 있던 흙과 섞더니 뿌리를 화분 속의 흙에 묻고 물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보니 화분 속에서 파릇파릇 싹들이 돋아 난 것이다. 신기해서 화분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엄마께서 웃으시며 "지연아, 화초에게도 사랑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가지들 모두 잘라 주고 뿌리를 다져주며 집에 와서 엄마께 "엄마, 내 화

초가 죽었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께서는 화원에서 조그만 국화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사주시며 "이 화분 가져다 놓고 죽은 화분 가져와"하셨다.
내가 가져온 화분을 본 엄마께서는 "아이고, 이러니까 화초가 죽었지! 뿌리가 틀려있는 것을 보니 화분을 넘어뜨린 것 같구나. 뿌리가 살아 있으면 모르겠네" 하시더니 가위로 죽은 줄기들을 모두 자르고 거름흙을 가져다가 화분 속에 있던 흙과 섞더니 뿌리를 화분 속의 흙에 묻고 물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보니 화분 속에서 파릇파릇 싹들이 돋아 난 것이다. 신기해서 화분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엄마께서 웃으시며 "지연아, 화초에게도 사랑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가지들 모두 잘라 주고 뿌리를 다져주며 집에 와서 엄마께 "엄마, 내 화



이지연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가보고 싶었던 승례문

태안의 검은 재앙에 이어 남대문(승례문)의 검은 재앙이 발생했다. 세계에서 3~4개 밖에 없는 갯벌 태안이 검은 기름에 뒤덮임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했는데, 이어서 승례문의 화마로 인한 재앙이 눈물나게 만들었다.
도심의 한 가운데서 600년 동안 곳곳이 건너며 서울의 얼굴을 대표해왔던 국보 1호가 화마에 휩싸여 5시간만에 사라진 것만으로도 변한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화가 나고, 비통하고, 한숨과 분노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마음과 자존심이 무너졌다. 승례문 영정 앞에 조문객들의 슬프고, 외롭고, 슬슬한

하얀 국화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음을 보고, 또 눈물이 났다.
내가 태어나서, 한반도 가보지 못한 국보 1호에게 더 더욱 아쉬움이 크다. 도대체 70대 황혼의 노인은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을까!
그 때, 당시에 토지 보상이로 또 당첨만큼 나왔다는 뉴스를 듣고, 국적도, 자식도, 손자 손녀도, 후손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욕심이 임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을 알지도 못하는 불쌍한 삶은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 학생들은, 무엇



조은혜 학생명예기자·부천부민초 5년

승례문 화재 사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중 뉴스에서 나온 승례문 화재 사건! 처음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 전경이 일어나도 안 망가졌던 승례문이 몇 백년만에 붕괴되었다.
우리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건축물로 손꼽혔던 승례문이 어처구니없게 쓰러진 것일까? 혹시 당

국의 관리가 소홀했건가?
남대문이 화재진압 5시간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모든 사람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사람들은 얼마나 충격 받았을까?
어떤 사람이 저지른 일인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범인 찾아봤자 승례문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권정아 학생명예기자·유음초 5년 wdd16719@naver.com

2008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 누가 참여하고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 방과후학교 운영을 비전으로,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2008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수준

도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 중 학교 교육 기능 보강을 학력 향상과 특기적성 계발·신장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들 위해 중·고등학교의 수준

별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해 무학년 선택형으로 운영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우수한 강(교)사에게 인건비와 순회 지도비를 지급하여 소외된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08년도에는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특기 적성 계발 신장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역점을 두되,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본 바탕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리아이 칭찬하는 방법

심리상담 ⑥

몇 년 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잘 한 일에 대하여 인정을 해 주는 것이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지 칭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남발하는 경우, 또는 잘못된 칭찬은 효과를 보기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이, 우는 아이를 달래며 '정현아 울지마 그래야 착하지'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착하다'는 단어는 칭찬이고 기분 좋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울지 않는 아이가 착하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슬픔을 느끼다 면 우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한 이유 없는 칭찬을 받으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칭찬하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아이의 칭찬 받을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본 나의 감정을 그대로 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목마른 동생을 위해 물을 떠다주는 모습을 보신다면 "정현이가 목마른 동생을 위해 물을 떠다주는 모습을 보니 다 큰 누나 같아서 엄마가 자랑스럽다"라고 그 행동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 유아라면 "정현이가 물 떠다 줬어요. 맛있는 누나네"와 같이 짧고 구체적인 말로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칭찬을 위해서 아동의 적절한 행동이 일어난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칭찬을 해 주세요. 아이는 자신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 쉽게 이해하여 그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우리나라는 칭찬을

해 주세요. 상투적인 언어가 아닌 진심으로 아이의 행동에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 향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 주세요. 물론 아동 혼자 있을 때에도 칭찬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칭찬은 듣는 아이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우월감이 너무 지나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문의: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지면위원